

참사람 36.5°C

2021년 2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CONTENTS 목차



04

참사람을 말하다

코로나19 시대의 참사람

발행일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Monthly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kbedu.or.kr



Cover Story

어느덧 성큼 다가온
따스한 봄을 생각하며
창간호 표지에는 꽃을 가꾸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봄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06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넓은 꿈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
글 _ 이수정



08

참사람 인터뷰

위기 청소년들의 삶에 등불이
되어준 참사람, 임석환 신부



16

재단사업 참여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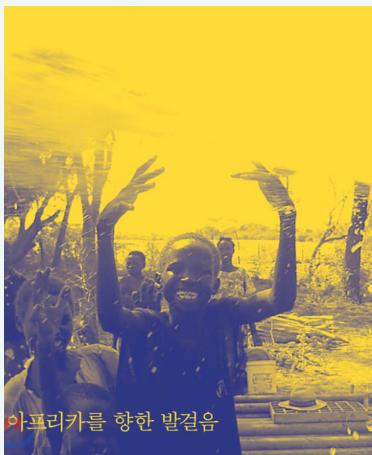
2020 재단과 함께 한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에필로그



12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요즘,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청소년 필수 앱 Top6



10

책으로, 참사람으로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길어올린
나의 기억
글 _ 나하يد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책?
글 _ 권일한



14

전문가 칼럼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나?
글 _ 유영만

18~20

교보교육재단 소식

교보생명희망다솜장학생들의
진솔한 성장 이야기
“그래, 난 아프기로 결심했다”

디지털 오딧세이 프로젝트
‘마지막 수업 : 끝과 시작’

2021년 교보교육대상 수상후보자
열린 추천

코로나19 시대의

참사람



코로나19가 불러온 단절의 시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불러온 위기와 혼란은 사상 초유의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은 멀어졌고, 이제까지 경험한 적 없던 상황에 직면하여 허둥대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학생의 87%인 15억여명이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는 저서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에서 아이들이 상실한 것은 다름 아닌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창 학교에서 공동체 문화를 익히고, 상호작용을 통해 마음을 키워나가야 할 아이들이 단절의 경험을 통해 심리적 고립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만큼 멀어지는 가족

학교 공간의 대안은 결국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학교를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상담 건수가 코로나19 전에 비해 무려 30% 늘어났으며, 이중 가족 문제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늘었다고 해요.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한 가족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는 상담 건수가 전년대비 24.8%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통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아이들의 손에 남은 것은 스마트폰

학교라는 교류의 공간을 잃어버리고, 가족과의 소통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당장의 고민을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와 모바일 게임이었어요. 청소년들은 미디어에 점점 더 의존하며 중독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2019년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30.2%가 위험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일상 을 변화시킨 2020년부터는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가 먼저 참사람 가치 실천해야

가정 안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른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모의 일방적인 소통의 결과는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라는 청소년의 항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잔소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부모가 스마트폰을 적당히 하라고 소리치지만, 부모 역시 스마트폰을 항상 옆에 두고 있으니까요. 핵심은 보호자로서 자녀를 이해하려는 자세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족의 리더로서 스스로 맡은 부모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는 모습, 청소년 문화(스마트폰, 언어, 놀이)를 배우는 자세로 소통과 공감을 시도하는 모습, 우리사회 의 ‘공동의 선’을 위해 이웃과 나누고 더불어 함께 하는 모습. 생활 속의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에 좋은 나침반으로 기능하는 것이겠지요.

코로나19 시대의 참사람

코로나19의 공포가 잠식한 1년,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했고 그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이자 추구 목표인 ‘인성’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죠. 코로나19가 청소년에게 불러온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가치는 바로 ‘실천적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지금의 성찰을 계기 삼아, 우리 사회의 참사람을 키우는 초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교보교육재단은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지향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 참사람에 대한 정의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인간성의 본질로 기능할 수 있기 를, 그리하여 가족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꿈꾸어봅니다.  교보교육재단

교보교육재단이 지향하는 ‘참·사·람’상

정직, 성실한 성품



- 높은 도덕성과 자기수양
- 솔선수범, 언행일치, 근면성
-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
-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
- 올바른 가치관과 양심, 사리분별

끊임없는 자기성장 추구



- 자기개발의 생활화
-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추구
- 새로운 발상과 도전정신
-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린자세
- 진취적인 기상과 미래지향적인 자세

타인과 사회를 위한 실천 (자리이타의 실천)



-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
-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통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조화, 협동과 공존
-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선 추구, 사회적 책임 시련
- 이(利)보다 의(義)를 중시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

에세이 

넓은 꿈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

글 _ 독자 이수정



딸만 다섯인 우리 자매들 중에서 셋째 언니는 걷지를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밤에 크게 열이 오른 뒤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읍내의원부터 시작해 다른 지방까지도 언니를 업고 서 침도 맞혀보고 약도 먹여보셨지만 언니는 걷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언니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돈을 벌러 가면서 셋째 언니는 자연히 내가 챙겨야 할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예민하던 열네 살 봄, 그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첫 발령을 오신 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잘생긴 선생님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도 등굣길에 그 선생님을 보면 괜히 부끄러워져 결눈질로 살짝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자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고모 댁에 언니 수술비를 빌리려 가셨기에 제가 언니를 업고 등교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염려스러운 얼굴로 제게 언니를 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업은 언니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얼굴이 터질 것같이 힘들어서 잠시 쉬

었다가 다시 업고 가는데, 옆에서 누가 자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업어줄까?”

고개를 들어보니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젓고 언니를 업은 채 종종걸음으로 앞질러 갔습니다. 빨개지고 땀범벅이 된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었습니다. 언니도 창피한지 제 등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 아침에 힘을 많이 쓴 탓인지 점심을 먹고 난 뒤부터 하염없이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학년은 6교시였고, 언니네 반 수업은 7교시, 게다가 매스게임 연습까지 있으니 두 시간 정도는 기다리겠다 싶어, 저는 교실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학교는 조용했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얼른 가방을 챙겨 들고 언니네 교실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불 꺼진 교실에 혼자 웅크려 있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먼저 간 줄 알았다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언니를 다시 업고 돌아가는 길, 절반도 못 갔는데 벌써 허리가 아파 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누군가 위에서 “괜찮니?”라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부산에서 동생을 매일 업고 다녔단다. 동생이 조금 느린 아이였거든. 지금은 일본에 가 있어서 못 업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 선생님이 한번 업어봐도 될까?”

선생님의 그 느리고 조심스러운 말투에 우리 자매는 눈물을 알 착 쏟았습니다. 선생님은 언니를 우리 집 마루까지 업어다 주시고도, 저녁을 드시고 가시라는 어머니 말씀에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누추한 집안을 부끄러워하시는 걸 보셨는지, 선생님은 ‘우리 고향 집 온 것 같고 좋네요, 어머니.’라고 방긋방긋 웃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이후로도 자주 언니를 업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때마다 동생이 느려서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 받았던 이야기, 그 동생이 지금 일본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 선생님이 부산에서 학교 다니시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가끔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를 읽어주시기도 했지요.

선생님은 언니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동생이 보내주었다며 도록을 주시기도 하셨고, 부산 풍경이나 일본 사진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멀리 나갈 수 없던 언니였지만, 넓은 꿈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민자는 색감을 잘 살리고 표현을 잘 하니까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유명해지면 모르는 척 하지마.’ 라며 응원을 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언니는 대학 생활 중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지금은 동화책에 넣는 삽화 그리는 일을 합니다. 언니는 이따금씩 말합니다. 중학생 때 그렇게 따스하게 말해주는 분이 안 계셨다면, 미래가 슬펐을 거라고.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아져 갔던 소녀에게 선생님은 한 줄기 빛이셨고 희망이었습니다. 소녀들에게 꿈을 키워주셨던 그 선생님은, 지금은 고향 부산에서 칠십 대 할머니들께 한글을 가르치시면서 꿈을 키워주고 계십니다. 할머니들 소원이 시를 쓰는 것이라는데 우리 자매가 그랬듯 할머니들도 넓은 꿈을 꼭 펼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4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끊임없이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타인과 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사람, 참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상에서 만난 참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모명 제4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공모대상 전 국민

공모기간 2021년

2월 1일(월)~3월 7일(일)까지

공모주제 [에세이] 일상에서 만난 참사람의 따뜻한 이야기(A4 1매 내외)

신청방법 ①신청서 다운 받아 에세이 작성 →
②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시상내역 40명 시상 / 시상금 총 370만원

문의처 ☎070-8244-7710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 kbedu.or.kr

공모전 알아보기





위기 청소년들의 삶에 등불이 되어준 참사람, 임석환 신부

2020년 교보교육대상 참사람육성 부문 수상자인

임석환 교장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사랑으로
오랜 세월 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새로운 대안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 안팎을 아우르며
참사람 육성에 기여하신 임석환 신부에게,
참사람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안 교육 기관을 운영하시며
참 많은 청소년들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좋은 프로그램이나 훌륭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하나의 존재, 단 한 사람의 어른이었죠. 변화는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신뢰에서부터 시작되더군요.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학생들은 저마다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은 '학생 부적응 학교'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와 개성에 부합하는 학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은 '학생 부적응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늘 고민했죠. 지나고 보니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그저 관계의 진정성을 느꼈을 때 아이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가와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함께 부대끼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주고, 함께 산에 오르는 등 소소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편이죠. 무엇보다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도 절대 내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을 텐데,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친구가 있는데, 집 안에서 바깥에서나 늘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희는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자신의 감정 컨트롤이 어려워 흥분하면 교사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는 아이였는데, 그런 돌발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다투거나 말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모두 표현하고 해소해낼 때까지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나자,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박스 바깥으로 나오더군요.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한 것이죠.



변화는 학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에도 선생님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 학생 곁에 있을 거라는 신뢰를 주고자 노력해요.

지금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의 가능성을 못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과거는 단지 과거일 뿐,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이 남은 청소년들이 부디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결국 말로 전하는 가르침보다는 말과 삶이 일치된 모습이 좋은 본보기가 되더군요. 어른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덕목과 가치를 말로 주입시키려 하기보다는, 실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책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길어올린 나의 기억

아프가니스탄 소녀 나히드가 띄우는 편지



이용주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8년째 살고 있는 11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나히드입니다.

저는 2012년 온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주제 도서를 보자마자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눈에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선생님처럼 저희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식수를 개발해 주시는 분들을 보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고마웠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외국인들이 온다고 마을사람들이 떠들썩하면 헬리콥터가 착륙할 밭에 가서 잡초를 뽑았던 기억,

선글라스를 끼 외국인들이 헬리콥터에서 내리면 우리는 달려가 각설탕, 공책, 연필을 받았답니다.

저는 그들이 개발해준 식수원의 물을 마시면서 자랐기에 그 때의 맑은 물맛이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식수를 "암파"라고 부릅니다. 할머니와 연락할 때 식수에 대해 물어봤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마을 사람들이 잘 이용하다가 지금은 물이 말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프가니스탄은 바다가 없어 농사와 식수로 고통 받는 나라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자랐던, 물도 전기도 없는 시골에서의

가난하고 고된지만 행복했던 저의 시간들을 뒤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선생님이 겪으셨던 상황들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상상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한 나라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아 왔던 환경, 문화, 언어 등이

완전 다른 나라로 떠나 고된 길을 선택하신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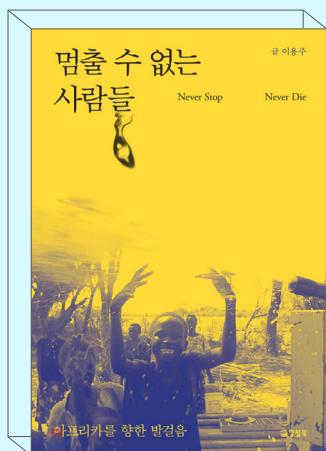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며 다른 나라에 희생하는 삶이

쉬운 일이 아님을 너무 잘 압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부끄러움과 함께 온갖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만약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이 세상에 많아진다면 이 세상에는 언젠가 꼭 평화가 찾아 올 거라 믿습니다. 저의 꿈은 선생님께서 걸어오셨던 길처럼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더 큰 세계로 나가 고통 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고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한국에서 제가 글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한 여자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기도 했습니다. 내게 사명감을 더하여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다이아몬드의 한 조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편지 중에 틀린 글씨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을 응원하는 나하드가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책?

생명을 살리는 분들의 현신을 깨닫게 하다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곳에 가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는 동안 일부러 위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진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을까요? 코로나 의료진 이전에도 이런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험 한가운데에서 피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용주는 아프리카에서 Father Lee로 불립니다. 잘 다니던 미국 회사를 그만두고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팍니다. 물이 없어 부족끼리 전쟁을 하고, 물이 말라버려 고향을 떠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돋습니다. 이용주와 팀원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 고초를 겪습니다. 반군에게 잡혀가고, 차가 뒤집히고, 심지어 정부군에게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갈 수 없는 곳, 돌아오기 어려운 곳, 도와주러 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에 왜 갈까요? 코로나 의료진과 같은 마음이겠지요.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권 일 한

삼척 미로초 교사/제20회 교보교육대상 참사람 육성 부문 수상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아이들 생각을 들으며 토론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아이들에게 책읽는 즐거움을 주려고 책으로 아이를 만나며,
이 과정을 성실하게 기록해서 독서, 글쓰기, 독서토론에 대한 책을 여러권 썼다.





청소년 필수 앱 Top6

TED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면?



전세계의 훌륭한 연사들이 들려주는 심리, 철학, 디자인, 과학, 종교, 교육 등 분야를 넘나드는 이야기들. TED 앱이 제공하는 짧막한 강연을 통해 생각의 폭과 깊이를 키울 수 있다.

투데잇

새해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살자!



하루, 일주일, 한달을 알차고 계획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계획과 실행여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투데잇이 제격. 공부진도, 기상패턴, 디데이 설정 등 다양한 기능으로 목표실천을 돋는다.

스터디 헬퍼 코로나 시대에는 ‘혼공’이 대세!!



수험생 150만명이 다운로드 한 ‘스터디 헬퍼’는 과목별 공부시간 측정, 전국 사용자와 공부시간 비교 통계, 날짜별 공부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차단하는 ‘예약잠금’ 기능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청소년들에게 크게 호응받는다고.

장급식/김급식 오늘의 급식 메뉴를 확인하자!



김급식은 고등학교 식단 정보를, 장급식은 중학교 식단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중고등학교 데일리 급식메뉴를 99.7% 이상 확보하고 매일 업데이트한다. 무엇보다 해당 메뉴의 칼로리까지 제공하니, 열량 계산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앱이다.

화해 화장품! 이제는 성분 보고 고르자!



여드름에 뾰루지까지, 한창 피부 고민 많을 청소년들에게 화장품의 전성분 정보를 제공한다. 무려 570만건의 생생한 사용자 리뷰를 통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이짤어때 글로는 내 감정이 표현 안 될 때!



SNS에서 이모티콘처럼 활용되는 이미지를 일컫는 ‘짤방’, 이짤어때는 최신 트렌드와 유머가 담긴 다양한 ‘짤방’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유료 이모티콘을 구입하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청소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유영만

지식생태학자, 한양대 교수

자연에서 지식창조의 원리를 파헤치는
지식생태학자이자 익숙한 개념의
낯선 조합으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출산하는
지식산부인과 의사이다.
〈공부는 망치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등
80여 권이 넘는 저·역서를 출간한
다작주의자이자 감동을 선사하는
명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부른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은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의 나를 깨우침으로 이끌어주면서 학은(學恩)을 베풀어 주신 스승에게 직간접적으로 깨우친 교육적 지혜를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적용해본다. 교육의 성패는 철학을 지닌 스승이 아이들을 각성과 성찰의 무대로 이끌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그 길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길이며 배우는 사람의 도리를 찾는 길이다. 그 길은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하나뿐인 철도가 아니다. 철도는 출발선에서 가는 여정, 그리고 도착지가 사전에 철저하게 정해져 있다. 학습자의 개성보다 교육을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전통적인 교육 패러다임이다. 철도 패러다임보다 진일보한 패러다임이 도로 패러다임이다. 도로 패러다임은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로 다양성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사전에 정해져 있다. 다만 거기에 이르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어볼 가능성의 문을 열어 놓았다. 안타깝게 목표를 한 곳으로 규정한 도로 패러다임도 우리가 지향할 미래의 바람직한 교육 패러다임에는 상응하지 못한다.

내가 스승에게 배운 진정한 교육 패러다임은 언제든지 다른 대안적 가능성이 존재하며 무수한 우발적 마주침을 통해서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오솔길 패러다임이다. 오솔길에는 정해진 길도 없고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곧 길이고 그 길속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환경이 나에게 깨우침을 전해주는 스승이다. 나는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의 향방을 여섯 가지 패러다임으로 생각해보려고 한다.



패러다임 전환 ① 단점 보완에서 강점 강화로

전환교육은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아니라 강점을 강화하는 노력이다. 단점을 보완해서 해당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 남을 따라가다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 내가 잘하는 재능과 강점을 중심으로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 ③ 방법 전달에서 방향 탐색으로 전환

미래는 불확실하다. 언제 어떤 변화를 몰고올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해진 문제, 정해진 대답, 정해진 방법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교육은 방법을 가르쳐서 모범생을 육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켜서 모험생을 육성하는 과정이다.



패러다임 전환 ⑤ 지행일치에서 지행합일로 전환

공부는 지행일치(知行一致)를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깨우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먼저 알고 나중에 행동하는 지행일치의 교육은 얕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된다. 지행합일은 알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알게 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얕과 삶은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는 지행합일의 교육이 되어야 교육이 삶과 따로 놀지 않는다.



패러다임 전환 ② 문제 해결에서 문제제기로 전환

공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보다 전대미문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이제까지 누구도 던지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



패러다임 전환 ④ 사전 계획 중심에서 우연 중시로 전환

공부는 사전 계획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구상하는 과정보다 우발적 마주침으로 깨달음을 터득하는 과정이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결과를 달성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우연한 마주침으로 색다른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낯선 환경과 자주 부딪힐 수 있도록 교육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 전환 ⑥ 목표 달성에서 각성 사건으로 전환

공부는 성적 중심의 목표 달성이 아니라 적성을 발견하는 각성 사건이다. 성적은 책상에서 올릴 수 있지만 적성은 일상에서 몸으로 체험을 통해 각성해야 알 수 있는 재능이다. 단기적으로 성적을 올려 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욱 소중한 일은 나의 적성을 발견,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각성하는 사건을 체험하는 것이다.

공부는 다리가 떨리는 일을 그만두고, 심장이 떨리는 일을 찾아가는 즐거운 육체노동이다. 머리로 계산하는 공부보다 몸으로 느끼는 공부가 오래 간다. 강점 강화, 문제 제기, 방향 탐색, 우연 중시, 지행합일, 각성 사건을 중시하는 공부는 모두 책상머리에서 머리로 찾아가는 공부가 아니라 몸을 움직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공부다. 이런 공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 중심적인 위인지학(爲人之學)의 공부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하면 재미있고 신나는 과정 중심적인 위기지학(爲己之學)의 공부를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위인지학은 나는 삶은 데 어쩔 수 없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동으로서의 공부지만 위기지학은 내가 하면 기쁨을 주는 적성 중심의 놀이로서의 공부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2020 재단과 함께 한 참가자들의 행복한 소감



자연체험학습, 특히 숲해설이 좋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해설과 함께 들으니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 톡!톡!톡! 가족소통캠프 참여가족 A 참여소감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 와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추억과 색다른 경험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톡!톡!톡! 가족소통캠프 참여가족 B 참여소감

배역에 몰입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연습하고, 실제 무대에 오르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뜻깊은 시간이고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 마음두드림 연극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김OO



나는 평범한 16살 학생인데,
체인지 5기 친구들은 모두들
나 빼고 참 멋있다는 생각만
이 들었다. 그런데 벌써 3개
월이 훌쩍 지나, 어느새 친구
들만큼이나 멋지게 성장한 내
가 여기에 있다.

- 체.인.지 5기 권하영 수료 소감



체인지를 시작하기 전엔 눈치를 보면서 대답
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응답도 잘 하지 않
았었는데 체인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조금
이라도 응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전보다
응답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다.

- 체.인.지 5기 송유림 수료 소감



부채와 책갈피에 힘이 되는 문구를 써보고, 그림
을 그리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완성된 내 작품이
상상 이상으로 괜찮아서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겼
다.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주신 선생님들과 헤어짐
이 아쉽다. 사랑해요 선생님!

- 마음두드림 미술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임OO



평소 아무 생각없이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시설들이 장애
인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무장애 지도 탐사 활동을 하면서 작게나마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지속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대면 봉사 프로그램 '우리동네 무장애 지도' 탐사대
1기 윤지호 참여 소감

처음에는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지 몰랐는데 직접 내가 그분
들의 마음이 되어서 탐사를 다녀보니 그 마음을 이
해할 수 있었다. 예전에 내 마음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무관심한지 새
삼 느끼게 된 것 같아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비대면 봉사 프로그램 '우리동네 무장애 지도' 탐사대

1기 김지현 참여 소감



교보생명희망다솜장학생들의 진솔한 성장 이야기 “그래, 난 아프기로 결심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재단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희망 다솜장학생들의 이야기를 엮은 도서 ‘그래, 난 아프기로 결심했다’를 발간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부딪히며 끊임없이 도전해온 청년들, 역경을 극복하고 어엿하게 자리 잡은 희망다솜 장학생들이야말로 우리시대의 희망 메신저입니다. 상처에 좌절하지 않고 과감히 아프기로 결심한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가슴 울리는 사연을 담았습니다.

※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설계하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장학생으로 선발, 대학 4년 동안 지원합니다.** ‘교보생명 희망 다솜 장학금’은 지난 20년 간 400여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서로의 그루터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오딧세이 프로젝트 ‘마지막 수업 : 끝과 시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찾아 디지털 세계로 항해를 떠났던 ‘디지털오딧세이 프로젝트’, 그 대장정의 끝을 지난 12월 28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2020년 8월에 남해 상주중학교에서 시작된 첫 수업은 4개월 간, 총 17회기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디지털 오딧세이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디지털 현실을 알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클라우드에 기초한 협업 수업 방식으로 paperless 형태를 지향하고 온-오프 혼합방식(blended learning)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생-교사-부모 교육 3주체가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수업, 참여 청소년들은 지난 프로젝트 기간을 반추하며 우리가 이룬 것과 이뤄야 할 것들을 되돌아보았답니다.



제23회 교보교육대상 수상후보자 열린 추천



교보교육대상 열린 추천이 뭔가요?

교보교육대상은 참사람육성과

국민교육진흥에 기여한 후보자를
발굴, 매년 시상합니다.

(4개 부문, 총 상금 1억 2천만 원)

교보교육대상 열린 추천은 누구나

2021년 교보교육대상의 주인공을
추천할 수 있는 **참여 공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추천 대상인가요?

교육을 통해 사람을 참되게 키우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추천에 참여할 수 있나요?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추천에
참여 가능합니다.

열린 추천에 참여해주신 100분을 선정,

3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선정규모 및 내역은 변경 가능)

추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추천해주신 후보자께 재단에서
연락을 드려 교보교육대상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

후보자는 심사를 거쳐
올해의 **교보교육대상 수상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 1 열린추천
- 2 내용검토
- 3 개별연락
- 4 시상사업 안내
- 5 서류접수
- 6 후보자 접수완료

언제까지 어떻게 추천하나요?

2021년 2월 28일까지

큐알코드를 통해 접속하신 후
양식에 맞춰 제출해주세요.



참사람 36.5°C

교보교육재단은 '참사람 육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